2016년 2월 19·20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시속 150km' KIA 한승혁

"제구력으로 마무리 꿰찬다"

이 아니다. 타고난 신체가 뒷받침돼야 한다. KIA 우완투수 한승혁(23·사진)은 그런 면에서

월한 운동신경과 신체조건을 물려받았다.

다"며 웃었다.

를 놓고 경쟁 중이다.

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고 힘주어 말했다.

명했다.

복 받은 선수다. 국가대표배구선수 출신인 한장석 전 대한항공 감독이 그의 아버지다. 날 때부터 탁

그러나 단순히 좋은 어깨를 지녔다고 강속구

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KIA의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한승혁은 "그런 영향도 있

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 남들

은 '타고났다'고 할지 몰라도 열심히 해야만 한

그는 고교 시절부터 150km대 강속구로 메이

저리그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남들은

낯선 이 스피드가 그에게는 익숙하기만 하다.

오키나와 캠프에선 13일 주니치전과 17일 요코

하마전에서 잇달아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직 구 최고구속 153km, 152km를 찍었다. 압도적

스피드로 좌완 심동섭과 함께 마무리투수 자리

한승혁은 "야구를 하면서 항상 스피드가 나오

다 보니까 오히려 구속이 약간 떨어져도 정상적

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밸런스에 문제

는 없는지 신경 쓴다. 지금 이 스피드가 나왔다

는 것은 생각보다 몸이 좋다는 의미 같다"고 설

타고난 강속구가 부러움을 살 만하지만, 그도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한승혁은 "제구력이 좋

은 투수들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던지더라.

밖에서 보면 힘을 안 들이고도 원하는 곳에 던지

마무리투수에게는 강속구와 배짱 외에 정확한

제구력도 필수다. 다행히 점점 고민을 덜어내고

있다. 이대진 투수코치와 함께한 투구폼 수정작

업이 빛을 보고 있다. 한승혁은 "처음에는 꺼려

진 것도 사실이다. 투수들은 작은 것 하나만 바꿔

도 민감하다. 어릴 때부터 스로잉 자체를 크게 했

는데 갑자기 짧게 하려니까 적응이 안됐다. 그런

데 하다 보니 '이렇게 해도 되네'라는 생각이 들

마무리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일단 어떤 보

직이든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다. 한

승혁은 "중요한 위치에서 부담될 수 있지만 잘

이겨내고 싶다. 나와 팀에 좋은 일을 만들고 싶

오키나와(일본)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었다. 스피드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속 150km!' 많은 투수들이 꿈

꾸는 숫자지만, 모

두에게 허락된 것

은 아니다. 강속구

는 피나는 노력으 로 만들 수 있는 것

좌완 심동섭과 보직 경쟁



노던트러스트 막차 합류 강성훈이 만든 작은 기적



미래를 내다 본 '최태웅 감독의 눈'

14연승 선두 남자배구 현대캐피탈…그들을 춤추게 한 '5가지 리더십'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최근 2경기에서 단 한 번도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았다. 선수들이 알아서 척척 움직인 덕분이다. 최 감독의 리더십을 앞세워 현대캐피탈 은 최근 14연승행진을 펼치고 있다.

- 1 소신 스피드 배구 흔들림 없는 목표 **2** 혜안 선수 장점 찾아 강한 동기부여
- 3 공감 성과를 통해 제시한 팀 방향성
- 4 소통 수평적 소통…견고해진 신뢰
- 5 워칙 현장·프런트 확실한 역할 분담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경영이론 을 검증하기 좋은 곳이다. 실제 경영과 비교 해 새로운 생각과 흐름, 변화에 대한 테스트 가 빠르고 확실하다. 스포츠의 특성상 변화 는 드라마틱하다. 애매모호한 결과 대신 성 패가 명확하다. 한 시즌이면 결과가 확인된

감독을 경영자에 대입해 상대팀과 경쟁하 면서 시즌을 이끌어가는 전략과 전술,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며 생존을 추구하는 기업과 많이 닮아 있다. 삼성화재 배구단의 성공사례를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공유하고 신치용 전 감독이

유다.

선수라는 다루기 어려운 구성원을 통솔하 는 감독이 프런트와 상호존중해가면서 경기 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팬과 접점을 찾고 우 승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힘을 모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 다 르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눈여겨볼 팀 은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최태웅(40) 감독이다. 흥미로운 성공사례가 많다.

●리더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미래를 보는 혜안

젊은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뒤 "스피드 배 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뜬구름 잡 는 이야기라고 봤다. "우리 상황에서 무리" 라는 말도 나왔다. "일본도 10년을 시도했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스피드 배구 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이 제 모든 배구 팬은 최태웅 감독이 말하는 '업 템포 1.0 배구'의 실체를 안다.

스피드 배구는 세터의 빠른 토스와 공격을 고위임원들에게 그 비법을 자주 강연했던 이 상징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

직이면서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찾아내는 '협 업의 완성체'를 말한다. 스피드는 빠른 생각 과 준비단계의 속도였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14연승행진 속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새로운 시도의 출발은 불안했다. 'N H농협 2015~2016 V리그' 개막 이전 대학팀 과의 연습경기에서도 패했다. 선수들도 '새 로운 배구가 과연 성공할까' 속으로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프런트도 마찬가지였다. "올 해 안 되더라도 감독이 뚝심 있게 추구해나 가도록 많이 응원해달라"고 시즌 초반 주위 에 부탁할 정도로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기서 리더의 그릇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최 감독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차츰 성과가 나오자 구성원들이 스스로 달라졌다. 세상은 리더의 올바른 판단과 미래를 보는 혜안을 요구한 다. 지금 힘들어도 함께 성공하겠다는 의지 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원 한다. 현대캐피탈은 그런 면에서 복을 받았 ▶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tvN '응답하라 1988'의 주역 안재홍, 류준열, 고경표, 박보검(왼쪽부터)이 18일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편' 제 작발표회에 참석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포즈를 취 하고 있다.

'꽃청춘'으로 다시 뭉친 응팔 "드라마 때보다 더 많은 대화"

나영석 PD "실제 모습도 '응팔'과 닮아"

'청춘'들의 진한 우정이 눈부시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응 팔) 흥행 주역인 안재홍, 류준열, 고경표, 박보 검 등 '사총사'가 아프리카에서 또 하나의 추억 을 만들고 돌아왔다. 10일간의 여행 동안 한층 깊어진 우정은 검게 그을린 그들의 얼굴에 고스 란히 묻어났다.

19일부터 방송하는 tvN 배낭여행프로젝트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편'에 참여한 이들은 18일 서울 논현동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 에서 "이번 여행을 통해 약 1년간 드라마를 준비 하면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10일 동안 모두 쏟아냈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덕선(혜리)의 남편을 두 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었던 류준열과 박보검 은 여행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분위기다. 이들 은 "그저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뿐이고, 잊지 못 할 추억"이라 표현했다.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꽃보다 청춘'이라는 타이틀과 "요즘 아이들"인 이들과 잘 맞아떨어졌 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특성과 잘 어울렸다고 소개했다.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있 지만, 그 안에 있는 대자연의 속성은 알 수 없듯 이 들 역시 배우인지 학생인지, 연예인인지 모호하다 고 생각하는 '물음표'와 같았다"는 것이다. 드라 마를 벗어나 이어진 이들의 우정에 대해서도 "신기하게도 네명 모두 드라마 속 모습을 50%씩 가지고 있다"며 "(박)보검이는 택이 같 았고 (류)준열이는 정환이 같았다. 네 명 다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응팔'의 연장선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꽃청춘'을 통해 실제 모습의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는 자랑이 이어졌다.

이들 역시 여행을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운을 쉽게 떨치지 못한 듯했다. 맏형인 안재홍 은 "동생들이 다 이끌어줘서 행복했다"고 했고, 류준열은 "기적을 맛 봤다"고 말했다. 고경표는 "눈물이 났다"는 말로 감정을 대신했고, 막내 박 보검은 "형들의 배려로 감동 받았다. 훗날 시간이 맞으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 형일 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런데 '뉴맨' 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 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남자에게 최곱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옥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 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드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 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천연자수정

ठ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발명의명칭(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구 특 이 정 · 장

본체(순은)

제 10-0756243 호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T.1588-3346,010-8020-3346



6.5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8cm 2호 3호 7.1cm 6호 7호 8.6cm 8호 9호 8,9cm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주문 제작